

『書雲觀志』의 「故事」편의 재이 기록과 지구과학교육

이면우

(춘천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조교수)

『서운관지』는 1818년(순조 18) 천문학자 성주덕(成周憲)이 조선시대 천문대와 기상대를 겸한 관서인 관상감(일명 서운관)의 직무를 소개한 책이다. 이 책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이 중 <권3>의 「고사」편은 책 전체의 1/3 이상을 차지하는 방대한 양으로 1392년(태조 1)부터 1811년(순조 11)까지의 관상감에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. 예를 들어 첫 번째 기사는 태조 임신년(1392)에 구본 천문도가 임금에게 바쳐졌고, 그것을 저본으로 하여 석각천문도(천상열차분야지도)가 새겨진 사연을 기록하였다. 이밖에 혜성, 운석, 객성, 일식 등에 관한 천문현상, 우박, 이상 난동, 이상 한파, 가뭄 및 홍수 등에 관한 기상 현상, 뿐만 아니라 적조와 같은 자연 재해를 다루고 있다.

이 연구에서는 서운관지 『고사』에 기록된 기사 중에서 자연현상 [災異] 을 추출하고, 그 내용을 역사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. 즉 조선시대 사람들은 재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보며, 구체적으로 기록된 재이 현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밝혀내는 것이다. 끝으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역사 자료를 이용한 지구과학교육의 한 방안을 제언할 것이다.

주요어 : 『서운관지』, 「고사」편, 재이 현상, 역사 자료, 지구과학교육